

IV

Korea Accounting
Institute

손 상



※참고: IAS 39의 손상모형

손상모형

- IAS 39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 인식
- 손상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손상의 측정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대손은 미반영
- 현재상황을 반영하는 관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보고기간 말에 평가**

손상사건의 예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문제점

- **손상의 인식 지연**
- 손상 사건 발생 전에 이자수익이 과대인식 가능성 존재

※참고: IAS 39의 손상모형_계속

구분	분류	손상Test	손상차손(P&L)	환입(P&L)
채무상품	당기손익금융자산 (FVPL)	No	-	-
	매도가능금융자산 (FVOC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원금상환액-상각액) > FV • OCI→P&L 	환입가능 (이후 발생사건과 객관적 관련) * AC측정자산의 환입한도 :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장부금액
	만기보유금융자산 (AC)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BV - 미래CF의 PV) *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 (AC)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BV - 미래CF의 PV) *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 	
지분상품	당기손익금융자산 (FVPL)	No	-	-
	매도가능금융자산 (FVOC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 > FV, 유의적 or 지속적 하락 • OCI→P&L 	환입불가
	원가 (Cost)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BV-미래CF의 PV) * 유사한 자산의 현행시장 이자율로 할인 	

미래 전망적(forward-looking) 손상모형

미래 전망적 손상모형

- IAS 39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신용손실의 적시 인식
- G20 등의 요구사항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되, 매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 반영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과 그렇지 아니한 자산을 구분

손상대상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자산, FVOCI-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여약정 및 금융보증계약
 - * 지분상품은 손상 대상에서 제외

단일의 손상모형

- IAS 39의 금융자산별 다양한 손상모형의 복잡성을 감소

공시의 강화

- 신용위험,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사용된 정보를 공시(가정, 방법 등)

용어의 정의

신용손실

- 신용손실(=현금부족액, cash shortfall) = {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 -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 해당 신용손실에 유효이자율(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

기대신용손실

- 해당 신용손실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다음 12개월 동안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
- 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의 총 현금 부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금액
- (예) 12-month ECL = $PD_{12\text{-month}} * LGD * EAD$
 - ECL: 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PD: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 LGD: 채무불이행 발생시 손실율, Loss Given Default
 - EAD: 채무불이행 발생시 익스포저, Exposure At Default

전체기간(lifetime) 기대신용손실

- 기대 존속기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 (예) Lifetime ECL = $PD_{lifetime} * LGD * 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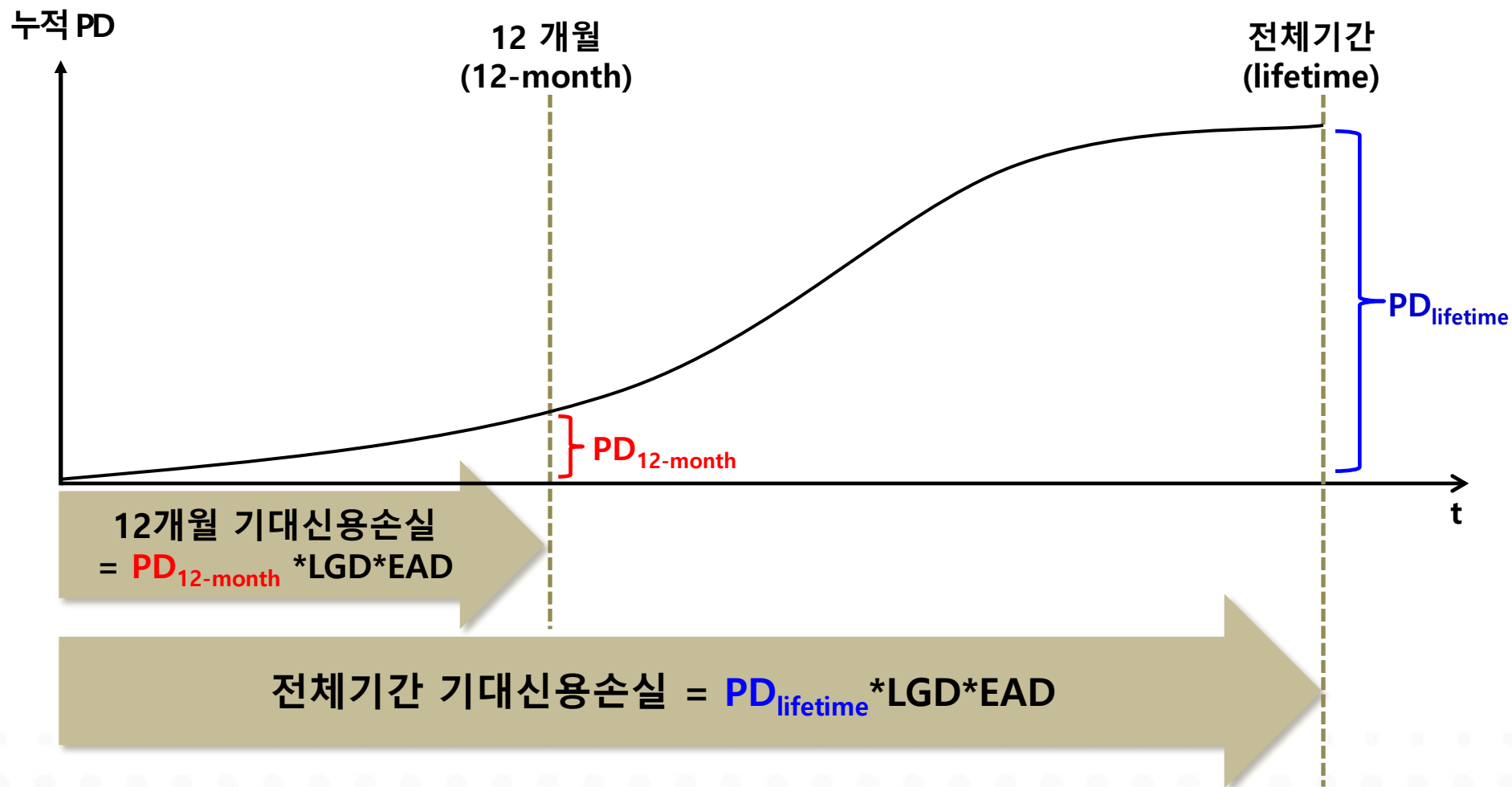
[사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

- 계약서상 규정된 만기가 있으나,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경우
- 고려할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 기간(연장옵션* 포함)임
- 최장 계약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이라 하더라도 최종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연장옵션을 채무자가 갖는지, 채권자가 갖는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이 상이함
- 따라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최장 계약기간은 실질적인 계약기간에 준한다는 것이 원칙임



단, 문단 5.5.20에서 계약상 기간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실질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약기간(substantial contractual term)으로 판단

PD방식에 의한 12개월 or 전체기간(lifetime) 기대신용손실



채무불이행(default)

- 기준서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 기업별 내부 신용위험관리 목적상 사용되는 정의와 일관되게 정의해야 함
- 채무의 미지급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질적 지표(계약의 위반 등)도 고려할 필요
- 채무불이행은 연체일수 90일을 넘어서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증 가능함



*1) Stage 2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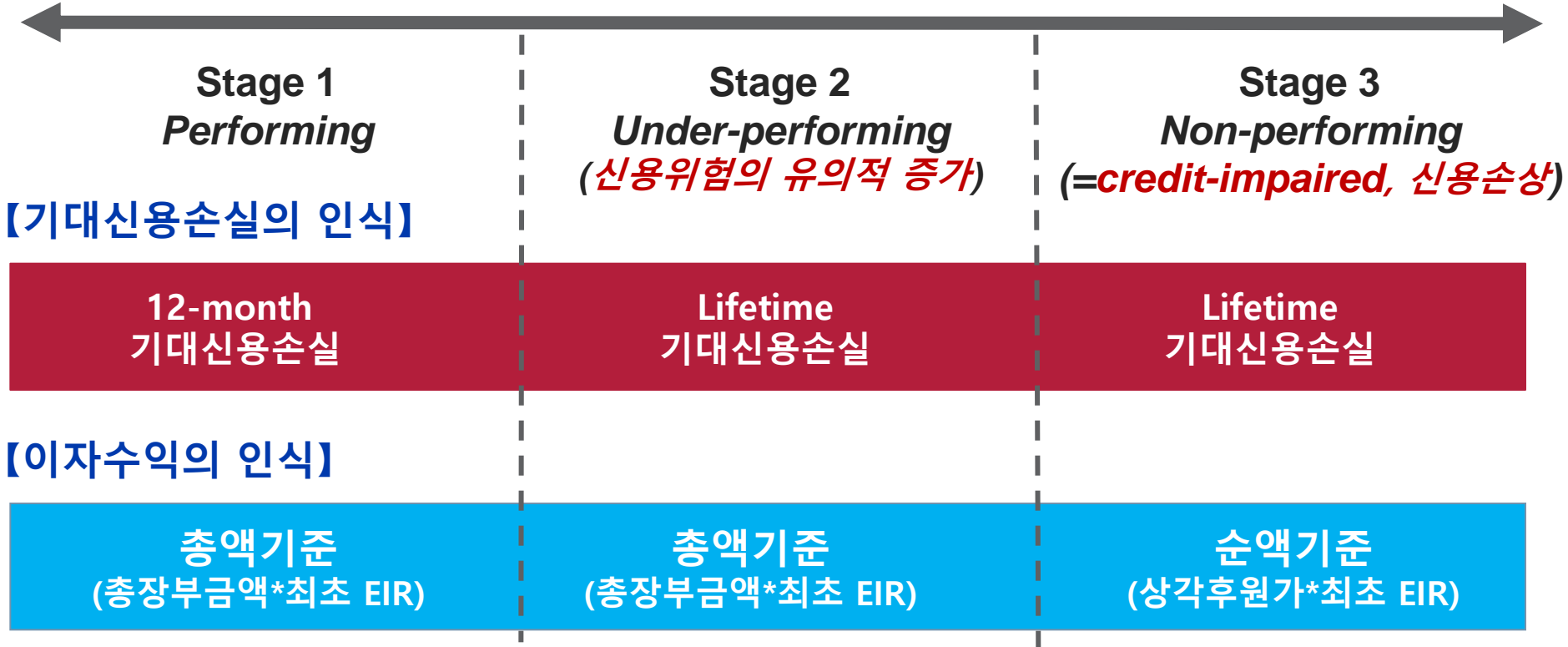
*2) Stage 3 분류

신용이 손상된(credit-impaired) 금융자산

- 후속적으로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①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연체
 - ②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③ 파산가능성, 재무구조가능성의 증가
 - ④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활성시장의 소멸
 - ⑤ 이미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취득

기대신용손실 인식_stage 1, 2, 3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변동



- * 신용위험의 변동(증가, 감소)에 따라 기대신용손실과 이자수익 인식의 대칭적 회계처리(stage간 이동 가능)
 * 상각후원가: 최초인식액-손실충당금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credit-impaired) 금융자산
 - 기대신용손실: 항상 **Lifetime ECL의 변동분**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이자수익: 최초 인식시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EIR_{credit-adjusted})**을 적용하여 인식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

미래전망 정보

- 미래전망 정보(또는 미래 경제상황 정보)는 제1109호 손상 요구사항의 핵심 요소임
- 제1109호는 (과도한 비용,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을 요구
 - 미래전망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지는 **통계적 모델** 등에 의해 판단될 필요가 없음
- 미래전망 정보의 적용지침에 대해서는 기준서상 부족함
 - 제1039호는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발생손실 기준으로 충당금을 산출, 미래 전망정보는 고려하지 않음
- 미래전망 정보는 불확실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의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중요**

적용할 미래전망 정보의 성격

- 미래전망 정보는 각기 다른 **금융상품에 목적적합**하여야 함
- 미래전망 정보의 특정 항목에 대한 **목적적합성은 신용위험의 특정 동인(specific drivers)에 따라 금융상품 간에 상이함**

(예) 특성 산업과 특정 지역의 미래 예상 실업수준은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영위하는 산업과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에만 목적적합할 것임. 또한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위험 특성을 공유한다면, 이러한 유사 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에 미래전망정보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_계속

복수의 시나리오 고려

- 기대신용손실은 **일정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5.5.17(1))
 - 각각의 다른 미래전망 시나리오 및 그와 관련된 신용손실이 **비선형 관계**(non-linear relationship) 일 때, **복수의 미래전망 시나리오**가 적용되어야 함
- **항상 복수의 시나리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미래전망 시나리오와 신용손실(또는 신용위험의 변동)간에 **비선형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복수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제1109호는 적용할 시나리오의 수를 특정하지 않음
 - 다만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절한 시나리오 수를 결정**

비통계적 방식을 복수의 시나리오 적용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또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 **부도율에 대한 통계적 모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기업은 신용위험 관리목적으로 부도율 통계 외에 **별도의 평가표(score card)** 사용 가능

- ① 평가표 투입변수와 거시경제 변수(예: GDP 성장률 등)간에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판단
- ② 투입변수와의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거시경제 **예상변수 범위** (예: GDP 성장률 범위)를 고려한 **조정계수**(scaling factor) 사용
- ③ 투입변수와 거시경제 **예상변수**간의 비선형 관계로 인해 **복수의 시나리오 반영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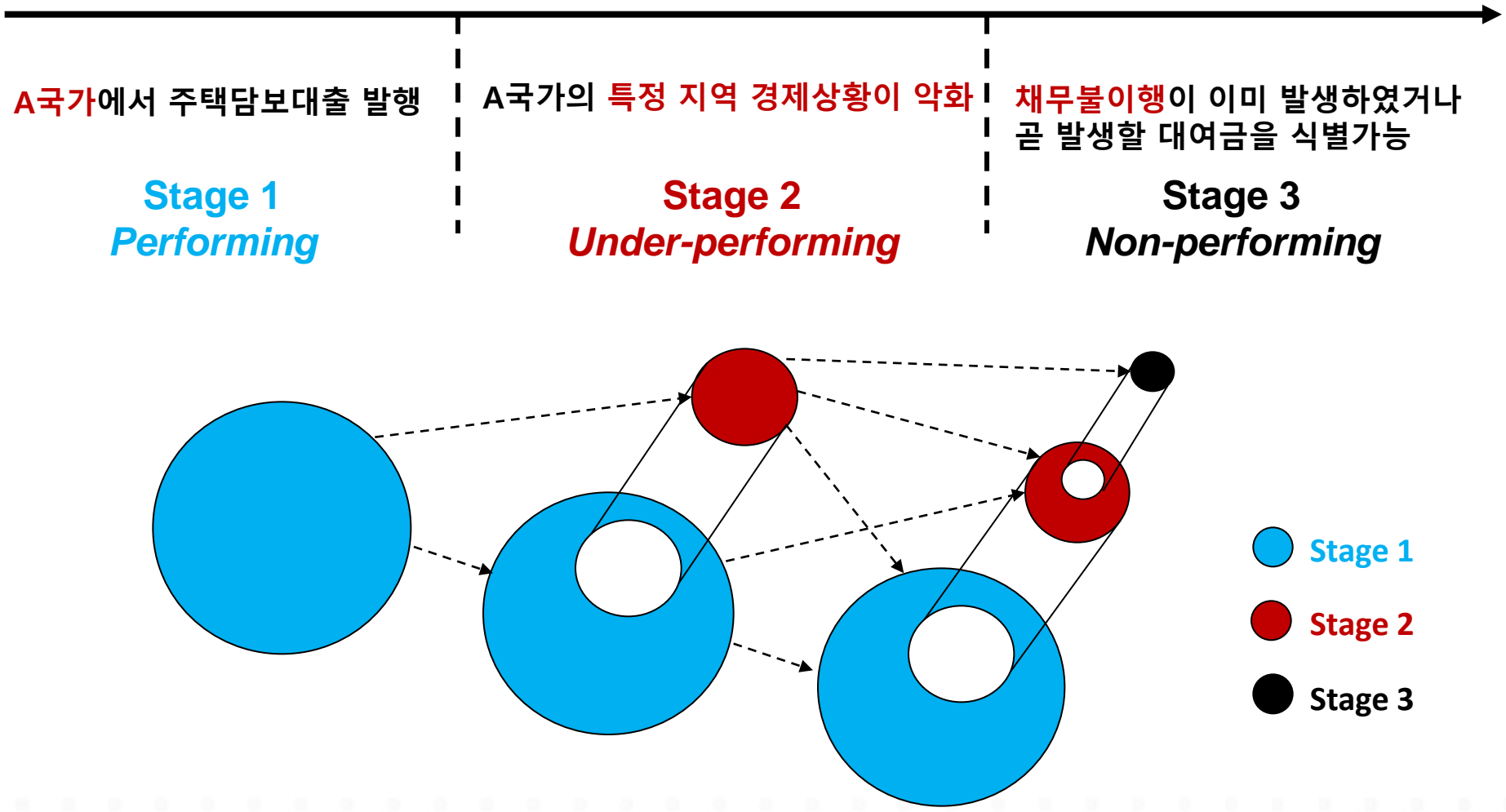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_계속

기업자체의 관점과 중요성 적용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식은 제시하지 않지만, **기업 자체의 관점**(entity's own view)을 반영
 - 복수의 미래전망 시나리오를 포함할 때 사용할 접근법을 결정하는 경우 **중요성**(materiality)도 고려
 -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와 기업의 예산 편성, 기타 예측 시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상호 일관**되어야 함
 - 동일한 관점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 전망정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미래 전망정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나, 관련된 정보가 항상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예)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관련**이 있는 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담보물이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음
- 따라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데에 **다양한 방법**이 회사 각각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는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을 모두 포함 가능

신용위험의 변동

-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가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1 증가

- 매 보고기간 말에 **기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비교
- **통계적 모델** 또는 **신용평가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음

*1) 유의적인지에 대한 판단시 다음을 사항을 고려

- ① (**최초 신용위험 수준**) 최초 인식시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위험 수준은 최초에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상품보다 유의적일 것임
- ② (**기대만기**)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
- ③ (**현금흐름 발생시기**) 만기에 근접하여 유의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은 시간이 경과한다고(만기에 근접)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 ④ (**기타**) 그 밖의 관련된 질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

30일 연체의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

- 다른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연체정보 사용 가능**
-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 반증 가능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_계속

신용위험의 변동 평가시 고려하는 정보

- 미래전망(forward looking) 정보를 포함하여, 과도한 원가(undue costs)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
- 만기, 신용스프레드
- 내부 · 외부신용등급^{*1}, 내부행동평점^{*2}, 연체정보^{*2}
- 경제적 상황(이자율, 실업률)
- 이익, 운전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경영진 문제
- 같은 차입자의 다른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 담보가치, 제3자 보증, 신용보강
- 대주주나 지배기업의 재무적 능력
- 이자지급유예, 이자율의 단계적 상승

*1) 신용등급은 IFRS 9의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용등급 활용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

- ① 신용등급이 충분한 빈도로 검토가 되는지
- ② 미래 전망정보 등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 ③ 금융자산 기대만기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하는지

*2) 행동특성 지표를 활용할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

- ① 신용위험 증가 관련 연체 전 행동 특성에 초점을 둠(예: 이용비율의 증가 또는 현금인출의 증가)
- ②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관련된 지표만을 사용
- ③ 신용위험 행동지표와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변동간의 관계를 정립
- ④ 행동특성 지표가 단기예측 또는 장기예측에 적절한지 판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_계속

낮은 신용위험

▪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으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이 낮음**
- ② 차입자가 **단기적으로 강한 지급능력을 보유**
- ③ **장기적으로는 그 강한 지급능력이 감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소하지는 아니함**

▪ 다음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면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외부신용등급**^{*1}
-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낮은 신용위험**^{*2}의 정의와 일관되는 내부신용위험등급

^{*1}) ECL관련 BCBS Guidance 에서는 Internationally active bank의 경우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없는 가계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이용할 수 없음

^{*2}) 외부 신용평가회사들이 제공한 신용등급은 역사적 정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정보의 원천**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거나 신용악화(credit deterioration)를 판단할 때 **미래전망정보를 추가 반영**해야 함

▪ **담보물**은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_계속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근사치로서 향후 12개월 위험의 사용

- 다음을 충족하면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이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일 수 있음
 - 채무불이행의 발생 양상이 기대존속기간의 특정 시점으로 집중되지 않은 경우
- 이러한 경우 전체기간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향후 12개월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에만 금융상품의 유의적 지급의무가 발생
 - ② 거시 경제적 요인이나 그 밖의 신용 관련 요인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신용 관련 요인이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의 금융상품 신용위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상기의 지침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는 것과만 관련된 것임
 - 기업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전체기간 위험을 반영

보증채무상품

- 보증채무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판단: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의 CF 제외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일으키는 차입자의 위험에 초점을 둠
 - 반면, 보증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는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도 포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_계속

금융보증계약

- 금융보증계약의 후속측정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제1039호 문단 47(3)	제1109호 문단 4.2.1(3)
문단 9에서 정의한 금융보증계약. 최초인식 후 이러한 계약 (문단 47(1) 또는 (2)가 적용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 <u>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u> (나) 최초인식금액(문단 43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문단 4.2.1(1) 또는 (2)를 적용하는 계약 제외)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가) <u>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u> (나) 최초 인식금액(문단 5.1.1 참조)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손상실무그룹(ITG) 미팅 논의에서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미수수료**(수령할 대가)와 기대신용손실과 별도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손상실무그룹(ITG) 논의내용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for an issued financial guarantee contract, '15.4月 AP6)

- 20. Consequently, the expected credit losses for the cash outflows under the guarantee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expected credit losses in respect of the future premiums receivable (the 'gross' approach). Under this approach, the provision for expected credit losses in respect of the expected cash outflows payable under the guarantee (less any reimbursements for those outflows) excludes future premium receipts.
- 21. We note that this approach results in the consistent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for 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premiums are receivable over the life of the contract or as a single premium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 이러한 점에서, **미수수료와 금융보증제공에 따른 지급의무**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

기대신용손실의 평가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개별평가**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평가(collective basis)**가 가능함
 - **개별 금융상품 수준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예) 다수의 소액의 소매대여금
 - **공통된 신용위험 특성(상품별, 지역별, 산업별, 신용위험등급별, 담보인정비율 등)으로 묶어서 평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특정 방법을 강제하지 아니함**(예: PD방식, 총당금 설정률표(매출채권) 등)
 - 많은 회사들은 이미 제1039호에서 손상차손을 계산하기 위해 **총당금 설정률표(provision matrix)**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역사적 정보에 **미래 전망정보**를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고려
 - **유사한 손실 패턴**을 가진 다양한 고객군별로 **그룹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예: 지리적 위치, 제품형태, 고객의 손실률, 담보형태 등)

기대신용손실의 평가와 측정_계속

기대신용손실의 측정_계속

▪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가중한 금액

-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식별할 필요는 없음
-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에 관계없이, 기업은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이는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 또는 단일의 최선의 추정치와 다름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과거·현재·미래전망 정보를 사용

▪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수 없음

▪ (예외) 다음의 특성이 있는 회전신용한도약정(신용카드, 당좌대월)*: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측정 가능

- ① 상환을 요구하거나 미사용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
- ②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상환이나 취소의 예고기간까지 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함

* Revolving credit facilities: Behavioural life(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를 추정하여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평가와 측정_계속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구 분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또는 그 근사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실행된 대출약정	대출약정의 실행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할 때 적용한 할인율 또는 그 근사치
유효이자율을 알 수 없는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	다음 ①과 ②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이자율 ① 화폐의 시간가치 ②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의 현금흐름상 특유한 위험
리스채권	K-IFRS 제1017호에 따른 리스채권 측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할인율

기대신용손실의 평가와 측정_계속

기대존속기간 신용손실(모든 현금 부족액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

구 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융자산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② 수취할 것으로 예상 하는 현금흐름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총 장부금액 ② 추정미래현금흐름 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미실행 대출약정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실제 대출할 경우 지급할 계약상 현금흐름 ② 실제 대출할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 하는 현금흐름
금융보증계약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발생한 신용손실로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예상금액 ② 피보증인, 채무자에게서 수취할 예상금액

* 담보나 신용보강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반영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mod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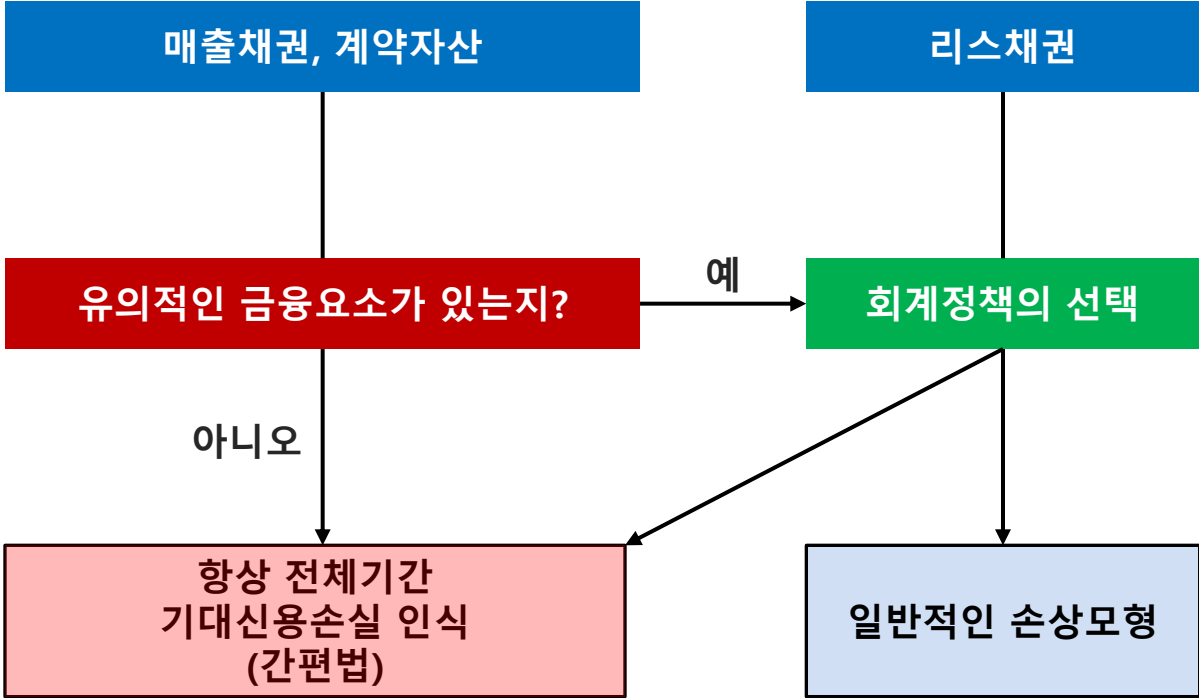
제거되는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or 변경**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 금융자산의 **제거일**(변경으로 인한 제거도 포함)에 기대신용손실을 재측정
 - 변경된 금융자산은 **새로운 금융자산**, 변경일이 최초 인식일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변경일 vs 보고기간 말**
 -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변경일: 일반적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기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여 12개월 or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부실자산**: 실질적 변경으로 제거되는 경우, 그 금융자산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제거되지 않는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or 변경**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 변경된 금융자산은 **기존 자산의 연속**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최초 인식시점 vs 보고기간 말**
- **변경일에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변경손익 = {변경일 BV - 재협상 or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기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여 12개월 or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매출채권, 계약자산(리스채권 제외)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경우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각각 구분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 각각 구분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_계속

미수수익, 임대료미수금, 임차보증금의 간편법 적용 가능 여부

- 회사는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며, 본사 건물 **임차보증금**과 부속 건물 임대료에 따른 **임대료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도 발생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 임대료 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에 대하여 제1109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규정(문단 5.5.15)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
- **(미수수익)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새로운 수익기준서(제1115호)는 현행 기준서(제1018호)와 달리 이자수익에 대해 규정하지 않으며 기업의 통상적인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한 고객과의 계약에만 적용(제1115호 문단 6)
 - 따라서 이자수익 및 미수이자자는 **제1115호 적용대상인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이 아니며,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그 밖의 계약상 권리**이므로 간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임대료미수금)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임**
 - 제1116호에 따르면 현행 리스기준서(제1017호)와 같이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료는 정액 기준 등으로 수익 인식하며, **향후 잔여 리스기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는 **운용리스채권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09호에서는 리스채권을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리스기간 동안의 **지나간 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받을 권리**(발생된 리스료 수익에 대응)인 임대료미수금은 **운용리스채권에 포함**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_계속

미수수익, 임대료미수금, 임차보증금의 간편법 적용 가능 여부_계속

▪ (임차보증금) 제1109호 문단 5.5.15의 간편법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리스이용자)이 임대인(리스제공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의미하므로 **금융자산의 정의(제1032호 문단 11)를 충족**
- 임차인(리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인(리스이용자)에게 생기는 **사용권자산**이며, **사용권자산만이 제1116호 '리스' 기준서 적용대상임**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선급리스료** 등을 반영하여 측정*하며,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 차금**이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는 선급리스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스채권은 아님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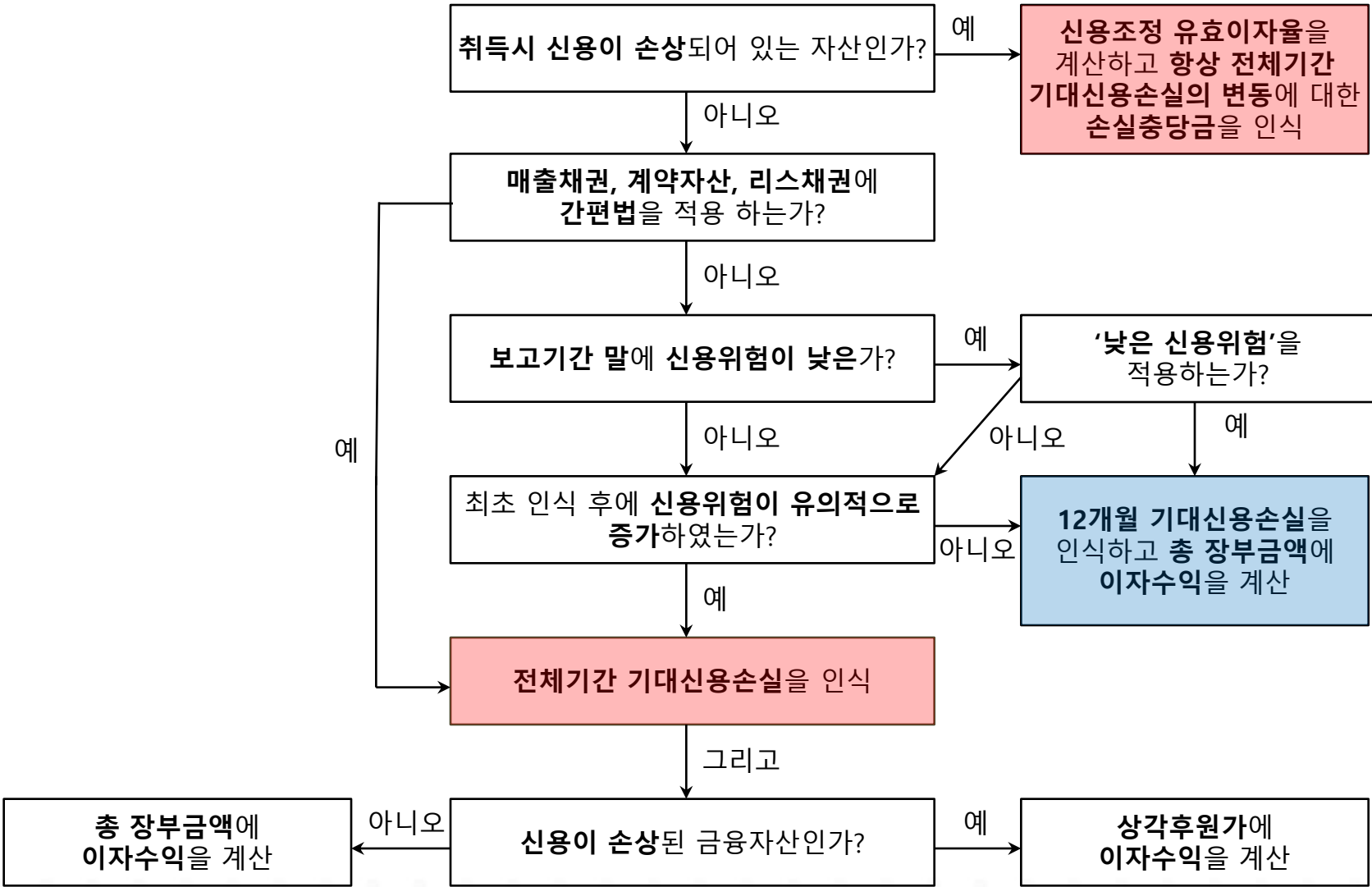
(+) 선급 리스료 [(-) 받은 리스 인센티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 조건에 따른 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 추정치

-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 (금융·운용 리스채권)이 아닌 **기타금융자산**이므로 **간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손상과 이자수익 인식의 Flow Chart



기대신용손실의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금융자산 xxx
손실충당금 xxx ← 제1107호와 제1109호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등의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FVOCI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금융자산 xxx
기타포괄손익 xxx ← FV변동과 함께 표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누적손상액은 별도로 주석공시

* 총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관련 부분(신용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실행) xxx
손실충당금 xxx ← 실행&미실행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

•

총당부채 xxx ← 금융자산(실행) BV를 초과하는 기대신용손실

양적공시

- 손실충당금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여주는, 충당금의 차이조정 내역*
 - * 구분공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인식 금융자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금융자산,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변동의 주요 요인을 보여주는, 총장부금액에 대한 설명
- 신용위험등급별 총장부금액 또는 연체정보별 총장부금액
- 제각(write-off), 회수(recovery), 변경(modification)

질적공시

-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기법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와 채무불이행을 결정하기 위한 투입요소, 가정, 기법
- 신용의 손상(credit-impaired)을 결정하기 위한 투입요소, 가정, 기법
- 제각(write-off)정책, 변경(modification)정책, 담보

IFRS 9의 손상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판단사항의 증가, 새로운 복잡성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더 필요
- 미래전망(forward-looking) 정보를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함

시스템 변경

- 정보의 수집, 추적, 관리, 분석, 기대신용손실 측정, 늘어난 공시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변경 필요

자본감소

- 회계상 자본 감소 예상, 대손준비금을 고려할 경우에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손익변동성 확대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변경시 손익변동성 확대 예상
- 신용등급, 이자율, 실업률 등 외부투입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상인식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익변동성은 보유 자산별,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 평가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

단일 손상모형

- 모든 금융상품에 단일 손상모형을 적용하므로 일관되고 이해가 쉽고 복잡성이 감소

금융기관 등 규제산업

- 금융기관의 손익, 자본이 변동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감독방향 및 규정 정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사례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인 경우

배경정보

- A은행, Y기업에 **트랑슈(tranche)** 대출
- **거시경제 변동**: Y기업의 총매출에 부정적 영향,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 유동성 증가 위해 **회전신용한도약정(revolving credit facility)** 이용, 레버리지 비율 증가
- A은행과의 계약위반에 가까운 상황

보고기간 말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초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
 - ① **거시경제상황의 악화**: 현금창출능력과 차입금 상환능력에 부정적 영향, 미래에 계속적일 수 있음
 - ② **계약위반에 가까운 상황**: 채권·채무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채권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 Y기업의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시장상황불변, 유사기업 채권가격과 비교시 기업특유의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
 - ④ 신용위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내부위험등급의 재평가**: 실제 등급을 변경하지는 아니함*
- **Lifetime ECL 측정**

* 위험등급의 변동여부 자체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함

【사례 2】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아닌 경우

배경정보

- A은행, C기업(순환주기 제조업 그룹의 지주회사)에 대출
- 대출시점
 - C기업이 속한 산업전망은 긍정적이었으나, 순환주기상 잠재적인 매출감소 예상
 - 레버리지는 적정수준이나,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짧은 점이 우려
 -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으로 차입금 이자의 지속적 지급에 대한 우려
- 과거의 C기업: 외적 성장을 위해 M&A에 집중, 구조가 복잡, 변화에 민감, 현금흐름분석에 어려움
- 시장상황의 악화: 3개 종속기업의 매출이 유의적으로 감소, 2개 종속기업의 매출은 안정적
- 종속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개편을 발표: 자본조달 유연성 및 배당지급능력 증가 예상
- A은행, 자체적인 내부신용위험등급방식을 사용

보고기간 말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
 - ① 현재 매출의 하락은 최초에 이미 예상, 매출은 후속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
 - ② 기업구조개편은 일종의 신용보강: 유동성 증가 및 배당 지급여력 증가
 - ③ 신용위험관리부서의 평가: 최근 국면은 내부신용위험등급을 변경할 정도로 유의적이지 않음
- 12-month ECL 측정

【사례 3】 담보된 자산

배경정보

- A은행, H기업에 5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대출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대출/부동산가치)=50%
- **경기침체**: H기업의 수익, 운영수익 감소
- **규제강화**: H기업의 수익, 운영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유의적이고 계속적일 것으로 예상
- 차입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잉여현금흐름의 감소 예상, 연체가능성 증가 예상**
- **최근 부동산가치 하락, LTV=70%로 상승**

보고기간 말

- **신용위험이 낮지 않다고 결정**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결정**
 - 담보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함
 - 약간의 현금흐름 악화로도 계약상 지급액의 연체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신용위험에 노출
- **Lifetime ECL 측정**
- Lifetime ECL의 측정: **담보가치를 고려할 경우 ECL이 매우 작아질 수 있음**

【사례 4】 투자등급채권

배경정보

- A기업, 국내물류업 영위, 상장대기업, 5년 만기 회사채 발행
- B기업, A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 최초 인식시 A회사채에 대한 내부신용등급 설정(국제적 외부신용 등급 중 투자등급과 일관)
- A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분기공시정보, 채권평가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갱신자료에 의존, 사적정보 없음
- '낮은 신용위험(low credit risk)' 적용

보고기간 말

- 신용위험이 낮은지를 평가,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투자등급이 아니라고 결정
 - ① 최근 분기수익20% 하락, 분기영업이익 12% 하락
 - ② 채권평가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투자적격→투자부적격으로 하향조정을 고려했으나 조정하지 않음)
 - ③ 채권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 A기업의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시장상황불변, 유사기업 채권가격과 비교시 기업특유의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
- A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이상 낮지 않다고 결정
 - 약정사항 이행능력은 보유
 - 그러나 불리한 경제상황과 사업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채무불이행 발생위험 증가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평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결정
 - Lifetime ECL 측정

【사례 5】 개별평가(individual basis)와 집합평가(collective basis)

공통사항

- A은행, **고객의 신용평점에 기초하여** 3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 **보고기간말, 모든 지역의 경제상황의 유의적 악화 예상, 실업률 증가 예상**
- 주택가치 감소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주택가격)의 **증가 예상**
-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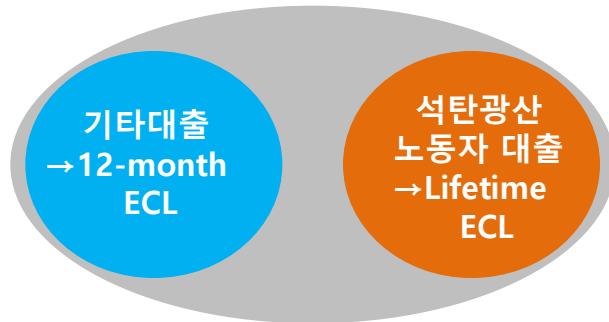
1 지역: 개별평가

- **자동화된 행동평점(behavioural score)**을 활용하여 **고객별로 매월 평가**
- 고객별 연체정보, 채무수준, LTV 및 他대출에 대한 고객의 과거 행동을 고려
- 최근 매매정보와 미래정보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재추정하고 정기적으로 LTV를 갱신
- 과거경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f(**주택가격하락**)
- LTV를 이용하여 ECL을 측정: LTV ↑ ...ECL ↑

【사례 5】 개별평가(individual)와 집합평가(collective)_계속

2 지역: 부분 집합평가

- 석탄광업지구, 석탄수출에 주로 의존, 석탄수출의 유의적 감소인지, **sub p.f**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
- 일부 석탄광산의 폐쇄예상, 실업률 증가예상
- 석탄광산 노동자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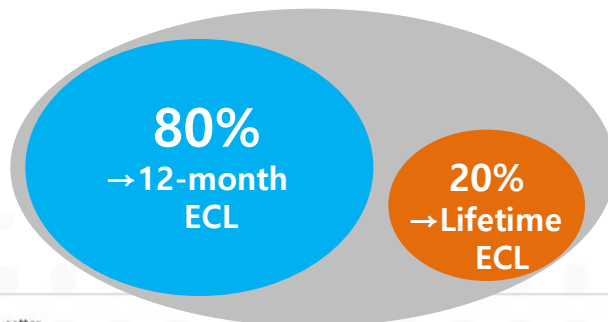


※ 석탄광산노동자에 대한 신규대출

- ① 최초인식後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無: 12-month ECL
- ② 일부 석탄광산의 폐쇄로 최초 인식 후 곧 바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해당할 수 있음: Lifetime ECL

3 지역: 전체 집합평가

- **전체 대출이 동질적**, sub p.f로 구분 불가, **전체 p.f**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
- 대출기간 동안 이자율 상승예상, 채무불이행 발생위험 및 신용위험 증가 예상
- 과거경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f(**이자율 상승**)
- 이자율 200bp상승: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20%**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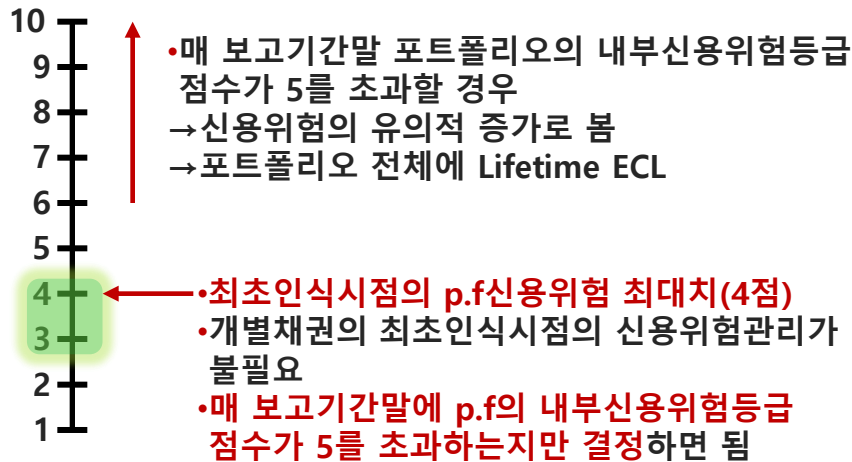


【사례 6】 최초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

W 지역

【자동차 담보대출 포트폴리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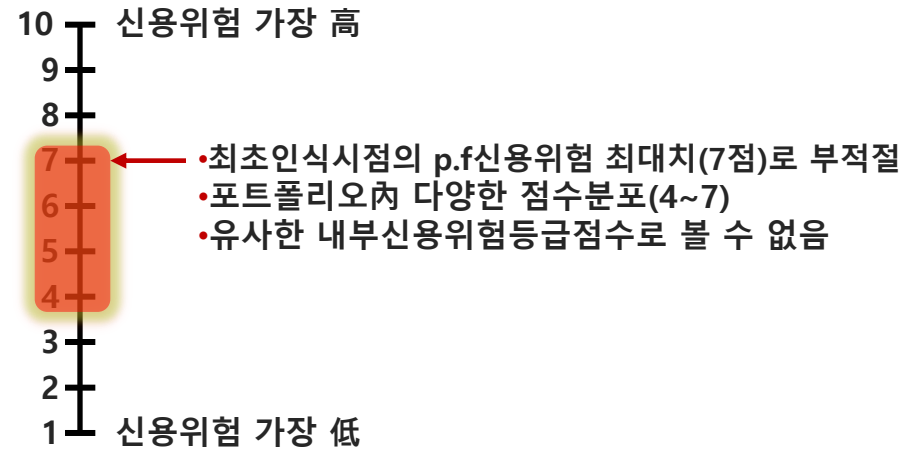
- 기존 고객들
- 유사한 내부신용위험등급점수(3~4)



→ 최초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가 적절함

【자동차 담보대출 포트폴리오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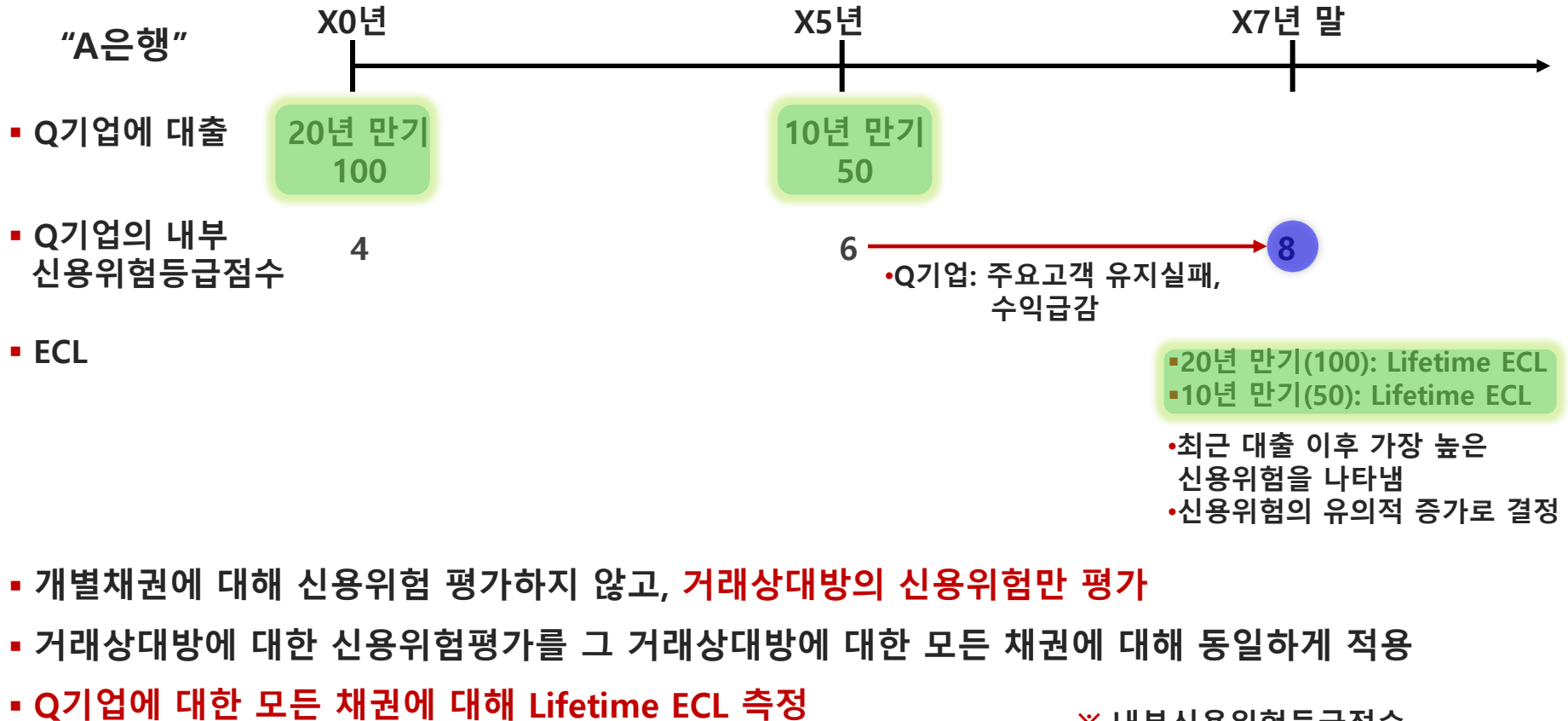
- 광고를 보고 신청한 고객들
- 다양한 내부신용위험등급점수(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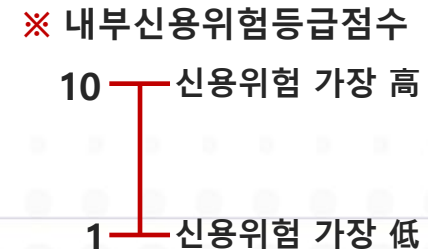
→ 최초신용위험의 최대치와 비교가 부적절함

【사례 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평가

개별채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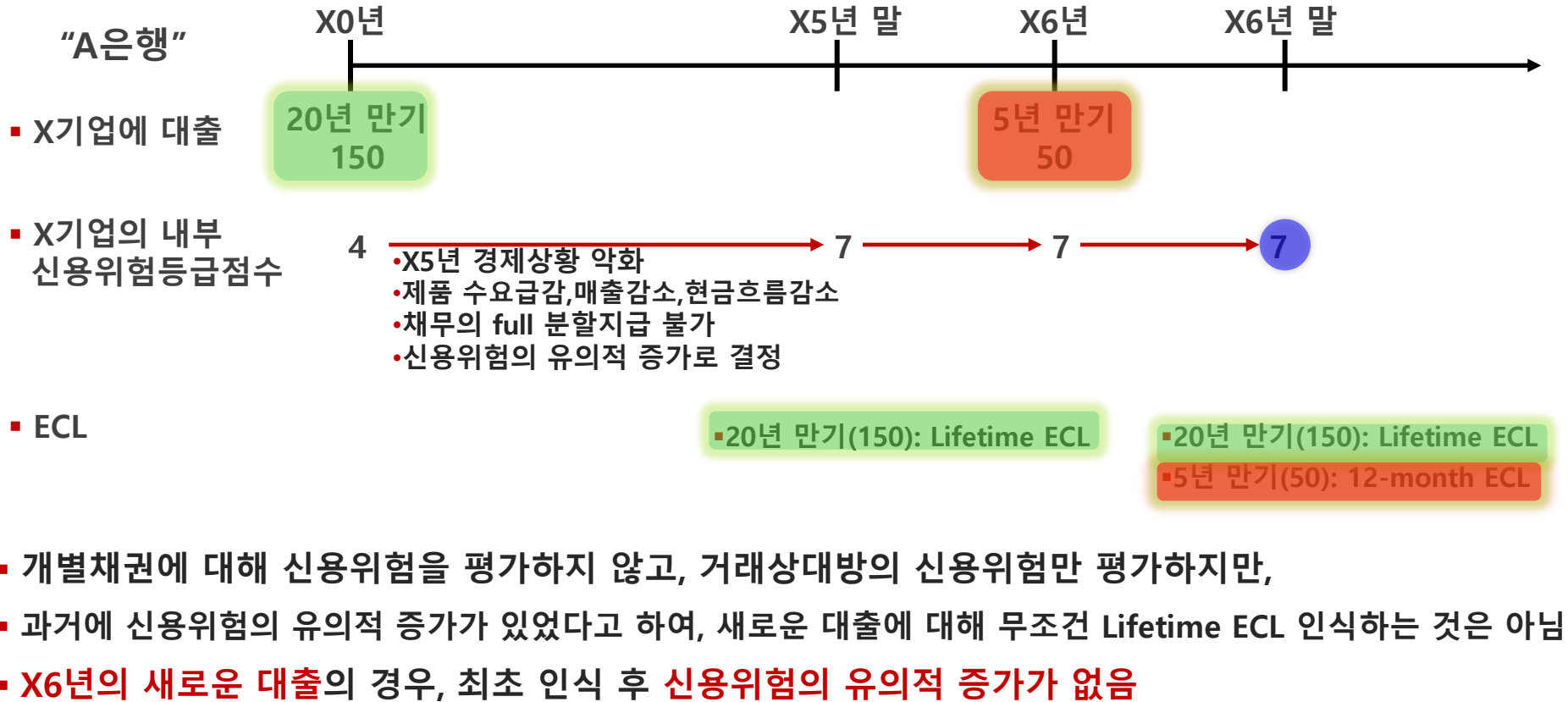


→ 거래상대방 기준의 신용위험 평가가 적절함



【사례 7】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평가_계속

개별채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평가결과



【사례 8】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D) 방식에 의한 12-month ECL 측정

일반적 대출채권

- A은행, 10년 만기, BV 1,000,000, 12-month PD(=0.5%), LGD(=25%)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
- 12-month ECL = $EAD \times PD \times LGD$
= $1,000,000 \times 0.5\% \times 25\%$
= 1,250

만기일시상환 대출채권(bullet loan)

- A은행, 5년 만기, 포트폴리오(1,000개* $@1,000=1,000,000$), 12-month PD(=0.5%), LGD(=25%)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
- 12-month ECL = $EAD \times PD \times LGD$
= $1,000,000 \times 0.5\% \times 25\%$
= 1,250

- PD: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Probability of Default)
- LGD: 채무불이행 발생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 EAD: 채무불이행 발생시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

【사례 9】 손실률(loss rate) 방식에 의한 12-month ECL 측정

- A은행, 만기일시상환대출 200개, 총BV 5,000
- 동일위험특성에 따라 그룹X(1,000개* $@20=20,000$)와 그룹Y(1,000개* $@30=30,000$)로 구분
- 손실률 방식: 과거경험률에 기초, 현재/미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과거손실률

그룹	대출개수	채무불이행시 단위당 금액	채무불이행시 총BV(EAD)	채무불이행 대출개수	채무불이행 대출BV	채무불이행 대출PV	손실률
X	1,000개	@20	20,000	4개	80	60	0.3%
Y	1,000개	@30	30,000	2개	60	45	0.15%

- 기말현재, 과거손실률에 비해 향후 12개월 동안 채무불이행 증가예상(그룹X 5개, 그룹Y 3개)
- But,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는 아님
- 12-month ECL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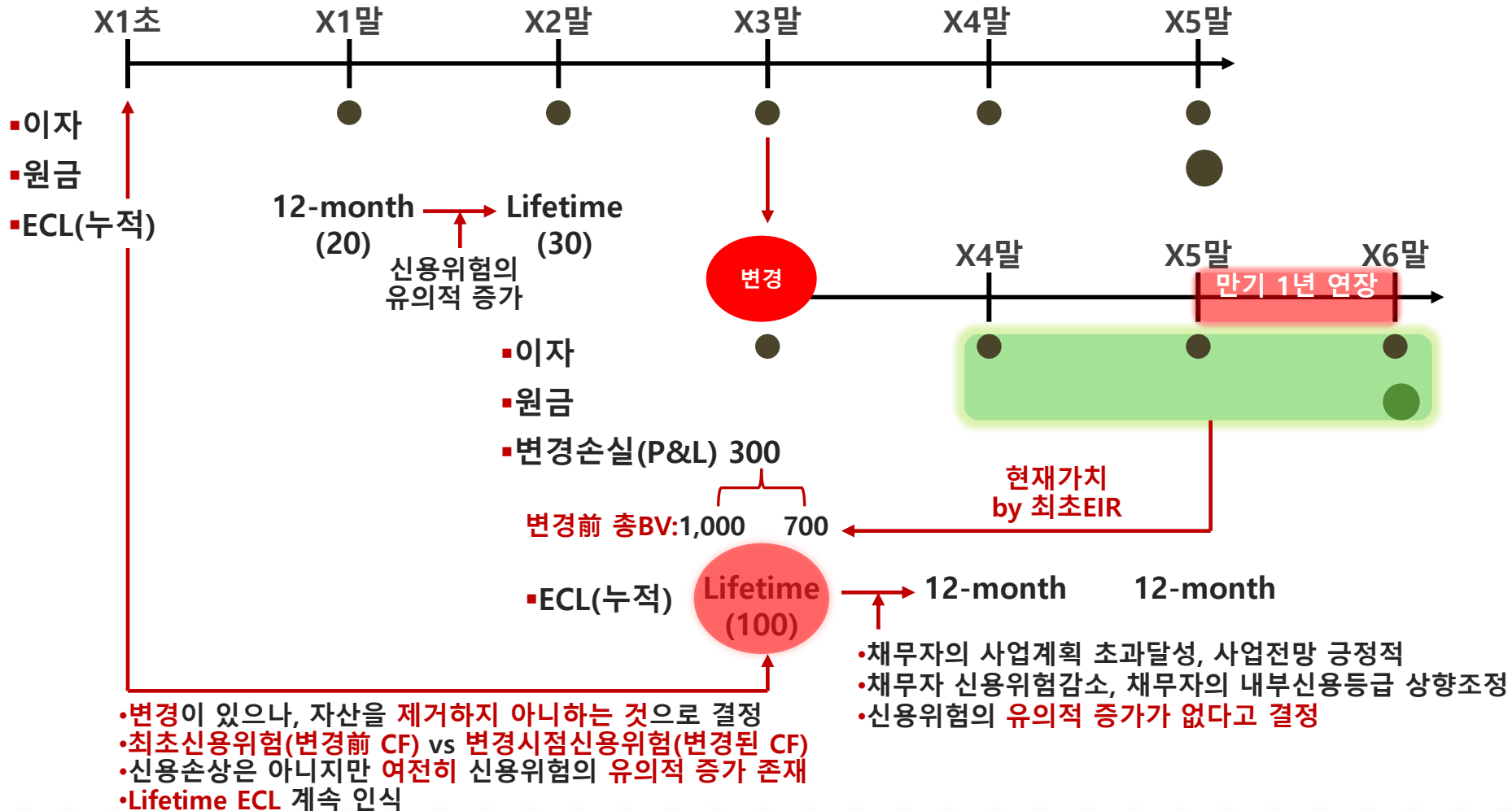
보고기간 말 손실률

그룹	대출개수	채무불이행시 단위당 금액	채무불이행시 총BV(EAD)	채무불이행 대출개수	채무불이행 대출BV	채무불이행 대출PV	손실률
X	1,000개	@20	20,000	5개	100	75	0.375%
Y	1,000개	@30	30,000	3개	90	67.5	0.225%

- 새로 발행하는 대출채권의 12-month ECL 추정시, 그룹X의 손실률(0.375%)과 그룹Y의 손실률(0.225%)을 사용

【사례 10】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modification)

- A은행, 대출채권, 액면 1,000, 5년 만기, 액면/유효이자율 5%



【사례 11】충당금 설정률표

“A지역 제조업체”

【매출채권 포트폴리오】

•a,b,c,d,e.....

•다수의 작은 고객, 공통위험특성

•단기채권(유의적 금융요소無)

Total 30,000

- 항상 Lifetime 충당금 인식(간편법)
- 충당금 설정률표 사용
 - 과거 채무불이행률 기초, 미래 채무불이행추정을 조정

연체기간	연체無	1~30일	31~60일	61-90일	90일~
채무불이행률	0.3%	1.6%	3.6%	6.6%	10.6%

연체기간	총BV	채무불이행률	Lifetime ECL
연체無	15,000	0.3%	45
1~30일	7,500	1.6%	120
31~60일	4,000	3.6%	144
61~90일	2,500	6.6%	165
90일~	1,000	10.6%	106
	30,000		580

【사례 12】 FVOCI-채무상품

X0년 12월초: FVOCI-채무상품, FV인 1,000에 매입, 만기 10년, 액면/유효이자율 5%

(차)	FVOCI-채무상품	1,000	(대)	현금	1,000
-----	------------	-------	-----	----	-------

X0년 12월말: 시장이자율 변동, FV가 950으로 하락, 신용위험의 유의적 하락無

(차)	손상(P&L)*1	30	(대)	FVOCI-채무상품	50
	기타포괄손익*2	20			

*1 12-month ECL 인식: 30, 누적손상금액으로 공시

*2 FV변동분 중 손상을 제외한 부분: $50 - 30 = 20$

X1년 1월초: FV인 950에 처분

(차)	현금	950	(대)	FVOCI-채무상품	950
(차)	손실(P&L)*3	20	(대)	기타포괄손익	2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